

[1 ~ 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작년부터 우리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다는 건의 사항이 많아 지역 주민과 학생 대표, 그리고 도서관 책임자를 모시고 이용 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 대표부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대표 : 이용자에 비해 도서관이 너무 비좁고 직원들도 적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도서관 책임자 : 기존 인력으로 크게 늘어난 이용자를 상대하다 보니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도서관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대표 : 얼마 전에 아무리 기다려도 도서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결국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개방하기 전에는 항상 자리에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리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회자 : 결국 공간의 협소함과 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인데요. 이 모두가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생긴 문제점이군요. 그런데 인력 확충 문제는 현재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학생 대표부터 해결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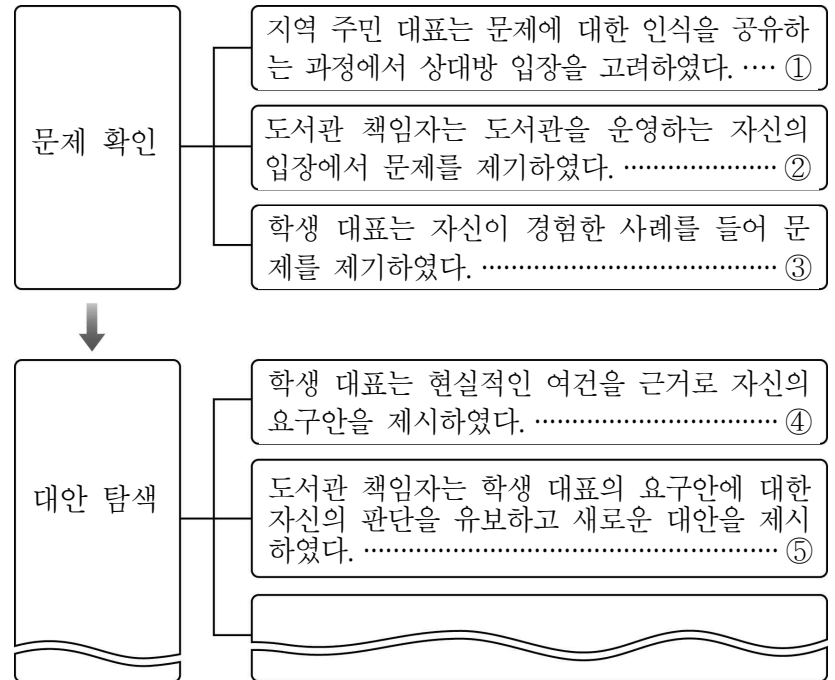
학생 대표 :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개방 장소도 개가식 열람실로만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분산되어 도서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 책임자 : 학생 대표의 제안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기로 했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판단이 쉽지 않네요.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책의 관외 대출을 허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외 대출이 안 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더욱 혼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학생 대표는 개방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을 제안해 주셨고, 도서관 측에서는 지역 주민에게도 책의 관외 대출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네요. 지역 주민 대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역 주민 대표 : 죄송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생 여러분들의 양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져 대학 입장에서든 좋을 것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 OECD 국가에서는 대학 도서관의 개방이 의무화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장서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1. 위 토의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위 토의를 진행한 사회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였다.
- ②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정해 주었다.
- ③ 토의 참여자 발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었다.
- ④ 토의 과제를 선별하여 이후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⑤ 토의 참여자가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3. 위 토의를 참관한 청중이 [A]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미 결정된 대안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어 논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② OECD 국가의 도서관 개방과 관련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는군.
- ③ 학생들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평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군.
- ④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자는 주장은 논점에서 벗어나 있어서 적절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군.
- ⑤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해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군.

[4~5] 다음은 학교 신문에 동아리 탐방 기사를 실기 위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정우: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 탐방 기사를 담당한 임정우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현지: 안녕하세요? 선배님, 편하게 말씀 낮추세요.
- 정우: 제가 선배라도 공식적인 인터뷰인데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시간을 보니 점심 식사를 막 마치셨을 때인데, [B]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현지: 네. 잘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정우: 여기에 오니까 정말 소극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무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 지금도 저기에서 학생들이 연극 연습을 하고 있네요. 저 학생이 주인공인가 보죠? [C]
- 현지: 네. 저 학생이 주인공이에요. 정기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 정우: 그렇군요. 이번 공연도 기대가 되네요. 어! 그런데 벽에 뮤지컬 배우인 최연기 씨 사진이 있네요.
- 현지: 우리 연극반 5기 선배님이세요.
- 정우: 아, 그랬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우리 학교 선배님이라는 것은 몰랐네요. 최연기 선배님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나요? [D]
- 현지: 네. 최연기 선배님은 바쁘신 중에도 자주 학교에 오셔서 후배들 연기도 봐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신답니다.
- 정우: 부럽네요. 그런데 연극반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나배우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 현지: 네. 나배우 선생님은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연출을 많이 해 보셔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신답니다. 하지만 연습할 때는 굉장히 엄하셔서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 봐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원을 빠져야 하는 아이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E]
- 정우: 아, 그렇군요.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럼 현지 양이 연극반 지도 교사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 현지: 저는 연극반 지도 교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 꿈은 뮤지컬 주연 배우가 되는 거예요. [가]
- 정우: 제 말은 그게 아닌데.....

4.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높임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에서 시간적 상황이 인사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에서 담화 참여자들이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D]에서 상호 교섭을 통해 질문과 답변 내용이 즉흥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에서 담화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능동적인 상호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5. [가]의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답변해야 해.
- ②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 공감적 듣기를 해야 돼.
- ③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말하기 전략을 사용해야 해.
- ④ 우리말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말하기에 잘 활용해야 돼.
- ⑤ 상대방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돼.

6. <보기>는 고등학생이 ‘중학교 학급 동창회 안내문’을 쓰기 위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아래 제시된 안내문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학생 1: 다음 주면 우리가 중학교 졸업한 지 꼭 3주년이야. 그래서 졸업할 때 약속한 대로 학급 동창회를 하려고 안내문을 만들어 봤어. 한번 봐 줄래?
- 학생 2: 그래. 모임 일시, 장소, 대상 같은 걸 앞에 배치해서 친구들이 잘 알아볼 것 같아. 그런데 이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은 뭐야?
- 학생 1: 여기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좀 도와줄래?
- 학생 2: 내 생각에는 먼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동창회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 학생 1: 좋은데. 어렵겠지만 한번 해 볼게.

3학년 1반 학급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 모임 일시: 2013년 ○월 ○일 10시
- 모임 장소: △△중학교 3학년 1반 교실
- 초대 대상: 2010년 △△중학교 3학년 1반 친구들

자랑스럽고 그리운 친구들아!

선생님을 모시고 학급 동창회를 개최한다.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라 다들 힘들지? 이럴수록 3년전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리워진다.

친구야, 우리는 영원한 △△중학교 3학년 1반이다.

3학년 1반 학급 회장 박□□

- ① 식당에 먼저 가려고 내달리던 멧쟁이, 깍쟁이, 개구쟁이들. 옥구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들아,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 ②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교실, 우리 반 친구들. 우리를 철부지라 하시던 선생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지 않는가.
- ③ 3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틈엔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이번이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말자.

- ④ 교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지 않는 봄꽃처럼 활짝 피었고, 우리가 함께 있던 그 꽃밭에는 한 자락의 바람도 들어올 틈이 없었다.
- ⑤ 선생님께서 모래 가져 오라고 하신 준비물을 모래로 잘못 알고 가져와, 함께 벌을 서면서도 즐거워했던 친구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보석이었다.

[7~8] <보기 1>의 ‘건의문 쓰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보기 2>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1 >

[건의문 쓰기 과제]

초등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당국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보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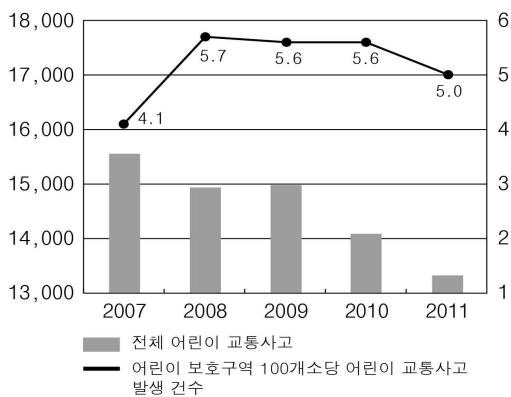
(가) 인터뷰 자료

차량의 속도와 교통사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 속도는 30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범칙금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交通安全 시설인 노면 표시나 안전 표지판은 차량 감속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交通安全 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연구소 ○○○ 연구원

(나) 통계 자료

(1)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건수)



— 경찰청 통계 자료

(2) 어린이 보호구역 내交通安全 시설물의 설치 효과*

交通安全 시설물	개수	평균 운행 속도
과속 방지턱	없음	47.45km/h
	1개	37.18km/h
	2개	30.62km/h
고원식 횡단보도**	없음	49.34km/h
	1개	33.67km/h
	2개	26.94km/h

— ○○학회 논문

* 해당交通安全 시설물이 0~2개 설치되어 있는 여러 지점을 조사한 결과임.

** 고원식 횡단보도: 도로보다 높이를 높인 횡단보도.

7. <보기 2>의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의 (1)을 묶어交通安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고 있음을 밝힌다.
- ② (가)를 고려하여 (나)의 (2)에 제시된交通安全 시설물의 개수와 평균 운행 속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③ (나)의 (1)과 달리 (나)의 (2)를 해석할 때는 상반된 변화 추이에 주목한다.
- ④ (나)의 (2)를 통해 (나)의 (1)에서 2008년과 2010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한 원인을 해석한다.
- ⑤ (나)의 (2)에서 과속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가)에서 찾아 논거로 활용한다.

8. <보기 1>과 <보기 2>를 고려하여 건의문을 쓰기 위한 전략과 내용 구성 방향을 구상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쓰기 전략	○ 건의문의 성격에 맞게 중심 내용을 ‘문제 제시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건의’의 순서로 구성한다. ○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부각한다. ① ○ 건의 대상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한다.
내용 구성 방향	○ 처음: 정중한 인사말과 함께 건의자를 밝히고, 건의 목적을 제시한다. ○ 중간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한다. ②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위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미비가 문제의 원인임을 밝힌다. ③ 3. 과속 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④ ○ 끝: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交通安全 시설물 확충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 ‘가족 간의 대화’를 주제로 설득적인 글 쓰기

□ **글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내가 수행할 과제는 ‘가족 간의 대화’를 주제로 설득적인 글을 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며 가족 간의 대화에 적극 나서자는 내용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만으로는 독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더하였다. 가족이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을 보강하니 한 편의 글이 완성되었다.

□ **학생의 글**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갖자.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 부모는 일로, 자녀는 공부로 바빠서 서로 얼굴을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오랜동안 대화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가정은 삭막한 곳으로 변하게 된다. 가정에서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가족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대화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윤희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가 아무런 노력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활동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9. ‘글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를 분석하여 독자의 흥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한다.
- ②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생성한다.
- ③ 중심 내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전개한다.
- ④ 주어진 자료에 담긴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충실하게 드러낸다.
- 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맞춤법에 맞게 ‘오랫동안’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문맥을 고려하여 ‘위로받을 수 있다’로 바꾼다.
- ③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헛되이’로 바꾼다.
-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러면’으로 바꾼다.

11. 다음은 ‘안다’의 표준 발음에 관해 어느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의문

“아기를 안다[안:따].”와 “그 사람을 잘 안다[안:다].”에서 ‘안다’의 표준 발음이 다른 이유는 뭘까?



탐구

(1) 음운 환경이 유사한 단어를 된소리 발음 여부에 따라 분류한 후 그 특성을 분석한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신발을) 신다[신:따]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 (하늘을) 난다[난:다]
어간 어미 신- -다	어간 어미 날- -다
-고 -어서	-고 -아서

(2) 표준발음법 규정을 확인하여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결론

“그 사람을 잘 안다.”의 ‘안다’가 표준발음법의 된소리되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은 ㉠

- ① ‘안다’에 대한 개인의 발음 습관 차이 때문이다.
- ② ‘안’이 길게 발음되어 ‘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 ③ ‘안다’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표현 의도 때문이다.
- ④ ‘안다’에서 ‘다’의 ‘ㄷ’이 모음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안다’에서 ‘안’의 ‘ㄴ’이 어간 받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보기> (가)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한글 맞춤법 규정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나) ㉠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 나는 연필 한자루를 샀을뿐이다.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 ① ㉠의 ‘큰’과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자루’는 제43항에 따라 ‘한’과 띄어 써야겠군.
- ③ ㉢의 ‘뿐’은 제42항에 따라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이해해’와 ‘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 ⑤ ㉡과 ㉢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써야겠군.

13. 다음은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이다.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제는 일을 끝마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 문제이다. ㉠
-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다. ㉡
- 나는 학급 회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
- 나는 성실한 그의 동생을 어제 만났다. ㉣
- 이번 주 금요일에 학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 ① ㉠: ‘문제’가 주어와 서술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를 ‘걸린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② ㉡: ‘소개시켜’는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므로 ‘소개해’로 고친다.
- ③ ㉢: ‘으로써’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수식 대상이 ‘그’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고친다.
- ⑤ ㉤: ‘회의를 갖다’는 번역체 표현이므로 ‘가질’을 ‘할’로 고친다.

14.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의 온도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사랑의 온도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모금의 목표액을 온도계의 온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계의 온도가 아직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①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 ②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가진 담화가 호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③ 상세한 내용 제시 후 일반적 내용을 제시하는 담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④ 비문법적인 표현, 단어의 반복이 나타나는 구어 담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⑤ 1:1 소통을 통해 실시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매체 담화의 특성을 보여 준다.

15.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다’, ‘듣다’, ‘느끼다’, ‘맛보다’, ‘말다’와 같은 단어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볼까요?

- ① **보다** { 다회를 보며 인상을 썼다.
이 도시를 유통의 중심으로 본다.
- ② **듣다** {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종종 농담을 진담으로 들는다.
- ③ **느끼다** {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 ④ **맛보다** { 찌개의 간이 어떤지 맛보았다.
인간은 때때로 상실감을 맛본다.
- ⑤ **말다** { 라일락 향기를 맡으니 봄이 온 것을 알겠다.
형사는 그가 범인이라는 냄새를 맡았다.

16. 다음은 ‘훈민정음’에 대한 발표를 위해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성자]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어금닛소리	ㄱ	ㅋ	ㆁ
혓소리	ㄴ	ㄷ, ㅌ	ㄹ
입술소리	ㅇ	ㅂ, ㅍ	
잇소리	ㅅ	ㅈ, ㅊ	ㅍ
목구멍소리	ㅇ	ㅎ, ㅎ	

[중성자]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ㅏ, ㅑ, ㅣ	ㅓ, ㅕ, ㅗ, ㅛ, ㅜ, ㅠ	ㅖ, ㅙ, ㅚ, ㅜ, ㅠ

[종성자]

종성에는 초성 글자를 다시 쓴다.

- ①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기본자와 가획자는 형태상의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 ②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③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④ 모음의 초출자와 재출자는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⑤ 받침에 쓰는 자음을 추가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노동을 제공하면 으레 그에 합당한 크기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만족을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만족을 경험한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보상의 크기가 합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크게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기업의 이윤에서 임금으로 얼마를 배분받느냐가 ‘배분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면, 얼마의 임금을 배분받을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절차 공정성’의 문제이다.

배분 공정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업적 등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이 받은 보상과 비교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성 이론을 주창했던 아담 스는 다음의 산술식을 활용해 설명했다.

$$\frac{\text{산출}(P)}{\text{투입}(P)} = \frac{\text{산출}(O)}{\text{투입}(O)} \quad (P=\text{자신}, O=\text{타인})$$

이 산술식에서 ‘투입’은 개인의 노력, 업적, 기술, 연령, 교육, 경험 등을 가리키며, ‘산출’은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보상으로 임금, 후생 복지, 승진, 지위, 권력 등을 포함한다. 아담 스는 개인이 이러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이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성과 불공정성의 지각은 개인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배분 공정성은 ‘내부 공정성’과 ‘외부 공정성’으로 구분된다. 내부 공정성은 조직 내부의 공정성으로 조직의 직무·직능·근속 및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제도를 잘 갖추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다. 내부 공정성의 확보는 개인의 만족과 그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 공정성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이 다른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에 비해 공정한가에 관한 것이다. 외부 공정성의 확보는 조직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관한 ㉠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 수준의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나 이의 제기 절차가 있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배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배분을 통해 보상을 받는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면 절차 공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7. 밑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에 비해 산출이 클수록 ‘배분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 ②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배분 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보상이 합당한지를 판단할 때 ‘공정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④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관련이 있다.
- ⑤ ‘외부 공정성’은 조직의 인력 수급과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 밑글로 보아,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ㄱ은행과 ㄴ은행에 동시에 합격한 Y씨는 동일한 일을 해도 ㄴ은행이 ㄱ은행보다 평균 임금이 높고 후생 복지도 좋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ㄱ은행에 입사했다. ㄱ은행이 ㄴ은행보다 선진화된 인사 고과 시스템을 갖추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가 ㄴ은행보다 잘 갖추어져 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이었다.

- ① 직원들의 평균 임금과 후생 복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ㄴ은행보다 ㄱ은행의 ‘외부 공정성’이 더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
- ②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ㄱ은행보다 ㄴ은행의 ‘내부 공정성’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Y씨가 ㄱ은행을 선택한 것은 평균 임금보다 후생 복지를 더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 ④ ㄱ은행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업무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ㄴ은행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⑤ Y씨가 근속 연수와 상관없는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ㄱ은행을 선택한 것은 ‘배분 공정성’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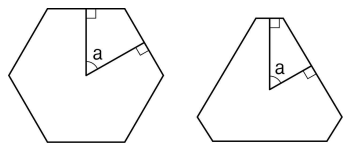
19.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는 말로로군.
- ② ‘배분 공정성’ 없이 ‘절차 공정성’만 확보되면, ‘공정성’ 확보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말로로군.
- ③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배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로로군.
- ④ ‘배분 공정성’이 ‘절차 공정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는 말로로군.
- ⑤ 배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로로군.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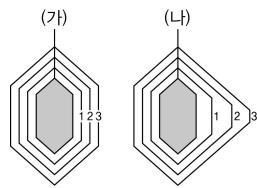
광물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로서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 광물의 결정 구조는 그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양상이다. 같은 광물일 경우 그 결정 구조가 동일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규칙적인 겉모양인 결정형(crystal form)도 동일하다. 그런데 실제로 광물들의 결정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니콜라우스 스테노는 등산길에서 채집한 수정의 단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는 수집한 수정의 단면도를 그려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수정 결정의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1>의 a와 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1> 면각 일정의 법칙

스테노는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해지는 이유가 ㉠ 결정 내부의 규칙성 때문일 것이라 짐작했다. 당시만 해도 그 규칙성의 이유가 되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결정 모양이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림2> 결정의 성장 과정(결정의 수직 단면)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정에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광물의 작은 결정 두 개를, 같은 성분을 가진 용액 속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자.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와 (나)는 같은 광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서로 같다. 이처럼 같은 광물의 결정은 그 면각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결정들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면각 일정의 법칙은 광물의 결정을 판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현대 광물학의 ㉡ 초석이 되었다.

2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면각 일정의 법칙은 무엇인가?
- ② 면각 일정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광물별 결정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결정면의 성장 속도는 결정면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⑤ 같은 광물의 결정이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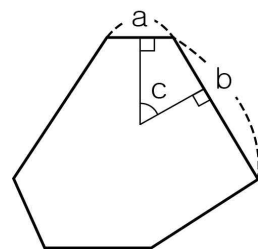
21.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스테노는 ㉠을 추측하기는 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 ② 스테노는 ㉠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입증했다.
- ③ ㉠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X선이 개발되었다.
- ④ 스테노는 ㉠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교하여 분류 체계를 만들어 냈다.
- ⑤ ㉠을 분석한 내용이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22.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광물이 성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평 단면을 보이는 결정이 되었다. (단, 물질 공급 이전의 결정의 초기 모양은 정육각기둥으로 가정하고,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물질 공급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배제한다.)



- ① 지금까지와 같이 물질 공급이 지속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 ② 현재의 결정 모양은 a면보다는 b면으로 물질이 더 많이 공급된 결과일 것이다.
- ③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a면과 b면의 면적은 같았을 것이다.
- ④ 현재의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a면과 b면이 이루는 각 c는 항상 같을 것이다.
- ⑤ 결정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

23.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붕돌 ② 고임돌 ③ 버팀돌
- ④ 굳은돌 ⑤ 주춧돌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천은 동기에서 비롯한다. 이 지점에서 윤리학의 핵심 과제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도덕 원칙이나 규칙 혹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를 입증하는 정당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화 과제이다. 정당화 과제는 무엇이 정당하며, 왜 정당한가를 따지는 일이며, 동기화 과제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고 유인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일이다. 이 둘은 윤리학의 쌍두마차인데, 시대에 따라 윤리학이 주력한 과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근대 이전의 윤리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정당화의 기반을 특정한 형이상학에 두고 있다. 또한 이 시대의 윤리학은 특정한 공동체를 현실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법적인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이 같은 전통과 관행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의거한 규범과 윤리를 전제로 한 동기화에 주력하였다.

윤리학이 정당화 과제보다 동기화 과제에 전념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윤리 체계는 관행이나 관습에 안주하면서 교조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화, 권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정당화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안정된 공동체가 해체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그 질서를 유지할 새로운 규범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개인들을 서로 묶어 주고 그들간의 갈등을 완화해 주던 유대가 점차 약화되고, 상업적인 인간관계가 점차 늘어났다. 그에 따라 ㉠ 개인주의가 우세해짐으로써 정당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근대 이후의 윤리학이 의무, 옳음, 책무 등에 대한 정당화 과제에 골몰해 온 결과, 윤리적 삶에서 행위의 동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어떠한 도덕적 행위도 정당화 측면과 동기화 측면을 갖는 만큼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 영역에서 정당화와 동기화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덕행은 언제나 정당화의 관점에서 반성되고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의무는 현실성 있는 동기화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24.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편향성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
 - 각 시대별 윤리학적 논쟁을 중심으로
- ② 가치와 동기의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 보편적 윤리학의 한계를 중심으로
- ③ 교조적인 윤리학이 등장한 배경 설명
 -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을 중심으로
- ④ 윤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 기존 윤리학이 지닌 편향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 ⑤ 윤리학과 인간의 삶 사이의 상관관계 고찰
 - 도덕적 가치의 변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임진왜란 이후 조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유교적 윤리 의식은 땅에 떨어졌다. 이에 조선의 임금인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각 지방에 배부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임진왜란 중에 목숨을 바친 사람을 비롯하여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통해 충, 효, 예라는 유교적 이념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여 피폐해진 국민 도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 ① 조선 사회의 윤리 체계는 정당화의 기반을 유교적 이념에 두고 있었군.
- ② 광해군 때는 전통적 권위에 의거한 규범을 전제로 한 백성들의 동기화가 시도되었군.
- ③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간행한 것은 동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④ 충, 효, 예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조선 시대 윤리 체계의 핵심 개념이었겠군.
- ⑤ 충신, 효자, 열녀의 덕행을 찬양한 것은 새로운 윤리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군.

26.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리학에서 개인의 실천을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 ② 기존 윤리학에서 동기화 과제보다 정당화 과제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 ③ 사람들이 윤리적 행위에서 의무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 ④ 특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 ⑤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27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세기 유럽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영향 아래 있었다. 비잔틴 미술은 종교화의 본보기를 제시하였다. 당대의 화가는 성서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들을 배치했다. 인물은 좌우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아무 감정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과 작위적인 시선을 가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이와 구별되는 회화가 나타났다. 새로운 회화의 선구자는 조토 디 본도네였다. 조토는 평면적 작품 위주였던 당시에 입체감을 표현하여, 고대 로마 미술을 마지막으로 천여 년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회화에서의 공간을 회복시켰다. 또한 인물의 표현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표정 묘사와 시선 처리에서 생생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심지어 신격화되어 왔던 대상까지도 사실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려냈다.

그렇다면 조토는 어떻게 당대 다른 그림보다 입체적이고 사

실감 있는 회화를 이루어냈을까? 그 기반에는 사실적인 관찰이 있었다. 일례로 이탈리아의 아레나 성당에 그려진 「동방박사의 경배」에 나타난 별을 들 수 있다. 그는 헬리 혜성의 모습을 관찰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듯 그는 사물과 인간에 대해 관찰한 것을 그림에 반영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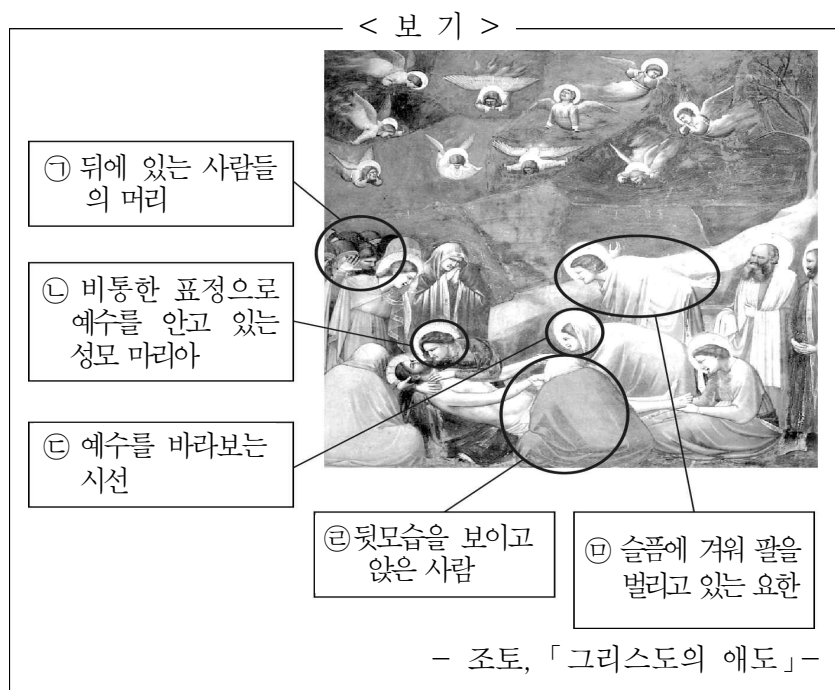
또한 조토는 구도를 면밀하게 고려함으로써 사실적 경향을 강조하였다. 당시의 화가들은 평면의 세부적 묘사에 치중하였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도록 하였으며, 앞뒤 인물의 크기를 비슷하게 그렸다. 그러나 조토는 뒤로 갈수록 인물과 사물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원근법을 사용하였고, 앞과 뒤의 인물이나 사물이 겹쳐지도록 표현하는 중첩법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간격이 느껴지도록 하였으며 거리와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의 그림은 여전히 중세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미묘하고 강렬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화가였고, 이러한 그의 업적은 이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27.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로마 미술은 회화에서 공간감을 나타냈다.
- ② 르네상스 미술은 비잔틴 미술의 원근법을 계승하였다.
- ③ 비잔틴 미술은 관습화된 종교적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 ④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평면적인 회화가 대부분이었다.
- ⑤ 13세기 유럽 회화에 묘사된 인물은 좌우대칭이 분명해 고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28.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중첩법으로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에서 성모 마리아와 같이 신경화되어 온 대상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불어넣은 것을 찾을 수 있군.

- ③ ㉢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하고 생생한 시선 처리는 중세 종교화에서 이어온 인물 표현의 방식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에서 인물들이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그림들과 대비되는 새로운 구도를 읽어낼 수 있군.
- ⑤ ㉤에서 슬퍼하는 사람의 자세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화가가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해 온 결과라 할 수 있군.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독서할 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이 있다면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을 하면 남고,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해석하면, ‘앎과 깨달음’이 더욱 자라나서 말과 행동이 두루 통하게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앎과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은 짝 막히게 되어, 얻었다 해도 반드시 다시 잃게 마련이다.

성현(聖賢)들은 도리를 닦고 언론과 법규를 바로 세워 천하와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성인의 말을 외우고 그 뜻을 깊게 생각해 볼 때에는 가슴에 가득 쌓여 있는 기운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부딪친 다음에야 그 뜻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얻고 난 다음에는 또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장차 도리를 전하고 말을 풀어 놓아 ‘앎과 깨달음’을 일으키고 말과 행동을 두루 통하게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치와 뜻은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한 사람의 지식만으로는 두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얻은 지식으로 미루어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깨달음을 발휘해 말을 가리고 생각을 깊게 해야 한다. 이는 성현의 마음이고 학문과 독서를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 윤희, 「독서기서(讀書記序)」-

(나) 독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사물에 유혹당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연구하여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마땅히 자신이 행할 도리가 분명히 나타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천하의 도(道)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물의 이치를 깊게 궁리하고 연구할 때 독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옛 성인과 현자가 마음을 쓴 발자취와 세상만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및 경계해야 할 내용이 모두 책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독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책을 대해야 한다.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하고 뜻을 다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사고하고,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읽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글과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지 입으로만 읽고 마음속으로 얻지 못하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슨 이로움과 유익함이 있겠는가?

- 이이, 「독서(讀書)」-

29. (가)와 (나)의 글쓴이가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독서의 목적’은?

- ①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을 비판하는 것
- ②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 안정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
-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 ④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 ⑤ 글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

30. (가), (나)를 읽고 ‘독서’에 대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독서를 통해 ‘앓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①
- 독서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며, 생각한 것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②
- 온 마음을 쏟아 독서에 집중해야 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③
- 독서할 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며, 깨달은 바가 있으면 실천해야 한다. ④
-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 웃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만형 우리들이 가 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자매 그 누가 보살펴 주겠소?

노파·남자3 그건 염려 말아.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 주겠네.

둘째 우린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몰라 못 간다니.....

둘째 우리 모친 어느 곳에 계실는지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살았으면 이승 있겠고 죽었으면 저승 있겠지.

막내 우린 당장 떠나겠소. 떠날 때가 분명하듯 돌아올 때 분명하게 기약이나 정합시다. 십 년 기약 어떻겠소?

노파·남자3 (치마에 모은 노잣돈을 막내에게 준다.) 십 년 기약 그제 좋군! 자네들이 그때까지 꼭 찾아서 데려오게.

만형 막내 네가 바보구나! 노잣돈을 받았으니 안 떠날 수 있겠느냐!

둘째 (만형을 붙잡고 탄식하며) 차마 못갈 이승 길을, 몰라 못갈 저승길을 울며불며 가야겠네!

막내 (일곱 자식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몸 성히들 잘 계시오. 우리 어머니 꼭 찾아서 모셔올 테요.

만누나 장하구나, 우리 막내! 십 년 기한 차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 오너라!

(열 자식들이 세 자식들과 일곱 자식들로 나뉘 이별한다. 만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일곱 자식들은 무대 후면으로 물러간다. 만누나는 무대 가운데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만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만누나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가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노오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던 황톳길, 그 바짝바짝 메마른 황톳길을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만형 울지 말고 십 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만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가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들 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중략)

만형 여기가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엔 우리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는 제각기 길을 택해 가기로 하자.

둘째 (표지판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은 어느 길로 가시려오? ㉠

만형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는 도망간 게 여실하다. 열 명 자식 키우느라 그 고생이 막심한데 평생 수절하기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답답한 맘 풀어보려 서울 구경 갔을 테니, 난 이쪽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하겠다.

둘째 나도 별의별 생각 다 했소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 같소. 혹시나 바다에는 용궁 있어 저승과 통한다 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할 테요.

만형 막내 너는 어쩔 거냐?

막내 나도 여러 생각 다 했소만, 우리 어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승도 살펴보고 저승도 살펴볼 테요.

만형 네 생각이 그리하면 저쪽 산으로 가는 길이 네 길이다. 이제 각자 길로 가기 전에 노잣돈을 나눠 갖자. (노잣돈을 삼등분으로 나눈 다음,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너는 어리니 노잣돈을 더 가져라.

막내 아니요, 형님. (자기 몫에서 덜어내 만형과 둘째에게 준다.) 나는 젊으니 형님들이 더 가지시오.

둘째 (만형과 막내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며) 형님도 더 가지시고, 막내도 더 가져라.

만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십 년 기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자!

둘째 형님이나 잊지 마오! 막내야, 너도 잊지 마라!

만형 (길을 나눠 떠나는 둘째와 막내에게 손을 흔들어 전송하며, 목이 멘 소리로) 너희들, 어머니를 꼭 찾아 모셔 오너라!

(만형, 관객석으로 다가와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만형 어머니를 찾는다니, 그게 뭘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질병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으며)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다가 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31.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세 자식들’은 서로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 ② ‘세 자식들’은 기꺼이 어머니를 찾는 길을 나선다.
- ③ ‘세 자식들’은 십 년 기약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 ④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자가 선택한 길로 떠난다.
- ⑤ ‘세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		관객석
A	B	C

A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B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A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벗음은 A와 B의 상호 전환을 알리는 장치이다.
- ③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 ④ C의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33. ㉔, ㉕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찾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세 갈래 길’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함께 다니던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서울’, ‘바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떠나는 인생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욕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풍의 처 하는 말이,
 “부모 조업 누만금(累萬金)을 주색(酒色)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재, 길쌈, 방직하여 돈푼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낄손가?”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양기로 수기(手記)를 써 줘세.”

지필을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모년 모월 모일 수기를 기록하여 전하노라. 이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뉘우치니 후회막급이라. 차일 후로 가증지사(家中之事)를 모두 김 씨에게 맡기므로, 김 씨 치산(治産) 이후로는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 씨의 재산이요, 가부(家夫)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리라. 이후에 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이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증인에 가부 이춘풍이라.’

[A]

책명하여 주니, 춘풍 아내의 거동 보소.
 “수기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하였으나, 내 어찌 가장(家長)을 걸어 송사(訟事)를 할손가.”
 춘풍이 이 말 듣고 수기를 고쳐,
 ‘이것은 김 씨에게 올리는 수기라. 일후 만약 또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진실로 비부지자*라, 수기를 들고 일을 살피리라.’

하여 주니, 김 씨 받아 함롱에 넣고 이 날부터 치가(治家)를 한다.

침재 길쌈 능란하다. 오 푼 받고 새버선 짓기, 서 푼 받고 새김볼 박기, 두 푼 받고 한삼 짓기, 서 푼 받고 헌옷 깎기, 네 돈 받고 장옷 짓기, 닛 돈 받고 도포하기, 엇 돈 받고 천익* 짓기, 일곱 돈 받고 금침하기, 한 냥 받고 돌찌누비, 두 냥 받고 바지누비, 세 냥 받고 긴옷 누비, 넉 냥 받고 관복 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사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 금을 모았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럴 것이 바이없다. 이때에 춘풍이 아내 덕에 의복관망 꾸미고 고량진미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술로 매일 장취하는구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땡땡거리고 내달아서 호조(戶曹) 돈 2천 냡을 대돈번*으로

언어내어 박물군자인 체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이 말 듣고 크게 놀라 춘풍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이십 전에 부모 조업 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결단하고 앉았다가 물정 어두운데 평양 장사 가지 마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丹脣皓齒)* 반개(半開)하고 고운 노래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오.”

지성으로 만류하니 춘풍이 하는 말이,

“나도 또한 사람이지, 이십 년 전에 패가(敗家)하여 원통하기 골수에 박혔으니 천금진산환부래(千金盡散還復來)*라 하였으니 넌들 항상 패가할까 속속이 다녀옵세.”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한 푼 돈도 한 말 곡식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 마소.”

[중략 줄거리]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호조 돈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 종으로 일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男裝)을 하고 비장(裨將)이 되어 춘풍을 찾아간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푼 상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 놈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었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答杖) 골라잡고,

“조금도 사정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요.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대로 지르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 대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官令)이 지엄하니, 영문 본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비부지자: 친한 자. ‘비부’는 마음씨가 더럽고 못된 남자.

* 천익: 무관의 공복. 철릭.

* 대돈변: 돈 한냥에 대해 한 달에 한 돈씩 계산하는 이자.

* 분벽사창 청루미색: 아름다운 여자가 거처하는 곳. 기생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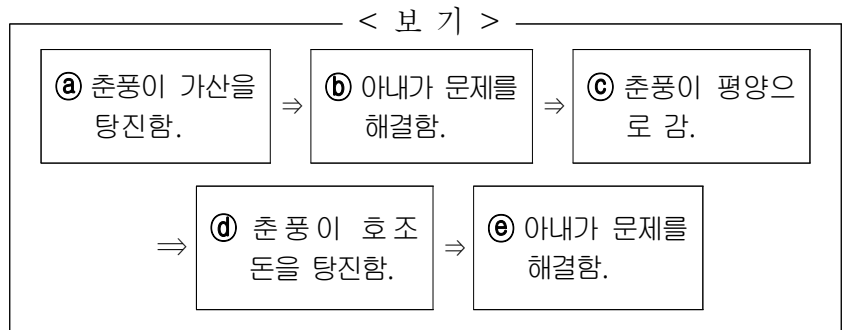
* 단순호치: 아름다운 여자.

* 천금진산환부래: 많은 돈을 쓰면 다시 돌아옴.

* 관자: 관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 비장: 감사. 또는 사신의 일을 돕던 무관.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춘풍의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 ②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 ③ 춘풍이 ㉢의 과정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장사 밀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춘풍의 아내가 평양 물정을 들어 ㉢을 만류한 것은 ㉣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 ⑤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의 과정에서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수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은 남성 가장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제 사회였다. 그런데 「이춘풍전」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제 체제가 변모하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

- ① 춘풍이 ‘수기’에서 아내의 치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②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춘풍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에게 ‘수기’를 써 주게 된 것이로군.
- ③ ‘수기’와 관련해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꺼린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④ 춘풍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기’를 고치는 모습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군.
- ⑤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수기’의 내용에서 경제 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군.

36.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③ 세밀한 외양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사건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A]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B]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C]

허이언 허이언 구름속에서
그대는 벼들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D]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언제인가 접시는
깨진다.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인간은 한 번
죽는다.

물로 반죽되고 불에 그슬려서
비로소 살아 있는 흙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完成)되는
저 절대(絶對)의 파멸(破滅)이 있다면,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모순(矛盾)의 그릇.

— 오세영, 「모순의 흙」 —

3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반전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A]~[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공간 개념인 ‘여기’는 시간적으로는 ‘지금’과, 상황적으로는 당면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지금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인식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여기’의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여기’를 기점으로 전반부인 1~4연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미 부여가, 후반부인 5~8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① [A]에는 화자가 이별이라는 현실에 부여한 의미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B]에는 [A]에서 ‘여기’에 부여한 의미가 변주되어 나타나 있다.
- ③ [C]에서는 현실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C]를 통해 ‘여기’가 화자인 견우뿐 아니라 ‘직녀’에게도 해당하는 현실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는 [C]를 변주하면서 미래를 기약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토대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그 유사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 사유 방식이다. 우리는 유추를 통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상적 대상에서 인간과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게 된다.

- ① 화자는 ‘깨진다’는 대상의 속성과 ‘죽는다’는 ‘인간’의 속성을 대응시키고 있다.
- ② 화자는 대상과 유사하게 ‘인간’도 ‘물에 젖고 불에 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는 화자가 대상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화자는 죽음을 잇고 생애에 충실한 대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생애의 영광’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모순’은 화자가 깨닫게 된 ‘인간’과 삶에 대한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야?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그 떠세*루 남의 돈을 무쪽같이 떼먹으려 드나 보다마는, 김옥임이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원체 예쁘장한 상관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마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옥임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찌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하고 새롭새롭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는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옥임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마는, 밀도 끝도 없이 ㉠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췌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나려나?** 이젠 무슨 객설야.”

하고,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찢절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빼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썩 변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두 마다니, 남의 돈 생으루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구 뭐냐?”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대나?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란 말이야.”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로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에게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려 들겠다면!”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피어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려고 섰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 **옆의 골**로 줄달음질을 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옥임이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 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는 중늙은이로 보이라. 머리를 곱게 지지고 옅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맥 유한마담이지, 설마 1할, 1할 5푼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관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덤빈 것이다. 중경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칸이며 땅 섬지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솔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결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썰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 **종로 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멍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멍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버르기는 하였지마는, ㉤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나 무어나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얹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고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 염상섭, 「두 파산」 —

* 떠세: 재물이나 세력 따위를 내세워 첩제하고 역지를 쓰는 짓.

* 생화: 먹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벌이나 직업.

* 취체역: 주식회사의 ‘이사’의 옛날 말.

* 반민법: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해방 직후에 만든 특별법.

* 제독을 주다: 기운을 꺾어 다시 꿈쩍 못하게 하다.

40.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41. ㉠ ~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임’은 ㉠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계속해서 ‘정례 모친’을 비난했다.
- ② ‘정례 모친’은 ‘옥임’을 달래 ㉢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 ③ ‘정례 모친’은 구경꾼들의 시선과 ‘옥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으로 향했다.
- ④ ㉠에서 표현하지 못한 ‘정례 모친’의 속내가 ㉢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있다.
- ⑤ ‘옥임’은 ㉤로 향하면서 ㉠에서 ‘정례 모친’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42. <보기>를 통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두 파산」은 금전적인 이해에 의해 어긋나게 되는 두 여성의 삶을 통해 정신적 파산과 경제적 파산이라는 두 가지 양상의 파산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들의 파산을 초래한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사회상에 독자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①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이나 친구로 지내던 정례 모친에게 ‘우정은 다 뭐냐?’라고 하는 옥임의 말에서, 둘의 관계가 금전적 이해에 의해 어긋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한때 ‘신여성 운동’에 참여하기까지 했던 옥임이 현재는 정례 모친에게 빚을 갚으라며 ‘난 돈밖에 몰라’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정신적 파산의 양상이 드러난다.
- ③ 옥임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정례 모친이 오히려 옥임에게 ‘이거 미쳐나려나?’라면서 나무라는 모습에서, 경제적 파산이 정신적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옥임을 한때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이었다가 재산을 ‘물수를 당할’ 처지로 설정한 것에서, 옥임의 파산이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상황을 틈타 친일파의 아내였던 옥임이 고리대금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43.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에도 티가 있다’더니 정례 모친의 삶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군.
- ②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옥임은 한가하게 남의 걱정이나 하고 있군.
- ③ ‘제 눈에 물대기’라더니 옥임은 남의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군.
- ④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더니 옥임은 그동안 정례 모친에게 하려고 준비해 왔던 말을 실컷 한 것이군.
- ⑤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에서 눈 흘킨다’더니 집안의 일로 짜증이 난 옥임이 정례 모친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군.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밋지 안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촉(燭) 잡고 갓가이 사랑홀제 암향부동* 흐더라 <제2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제3수>

눈으로 기약(期約)터니 네 과연(果然) 푸엿고나
황혼(黃昏)에 달이 오니 그림즈도 성괴거다
청향(清香)이 잔(盞)에 췌스니 취(醉)코 놀너 흐노라 <제4수>

황혼(黃昏)의 돛는 달이 너와 기약(期約) 두엇더니
합리(閣裡)*의 즈든 쫓치 향기 노아 맞는고야
넉 엇지 매월(梅月)이 밋 되는 줄 몰났던고 흐노라 <제5수>

— 안민영, 「매화사」 —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
- * 합리: 방 안.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매화사」는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연시조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각 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나 ‘눈’,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 ① <제2수>에서 화자는 ‘어리고 성근 매화’가 꽃을 ‘두세 송이’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 ② <제2수>에서 화자가 ‘촉 잡고 갓가이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다.
- ③ <제3수>에서 ‘눈’과 ‘달’의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에도 조응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제4수>에서 ‘달’이 뜨자 매화가 ‘그림즈’를 나타내고, 화자의 ‘잔’에도 매화의 ‘청향’이 차오르고 있다.
- ⑤ <제5수>에서 화자는 ‘합리의 즈든’ 매화가 일어나 향기를 내는 것은 ‘황혼의 돛는 달’을 맞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